

# 70개 대학 정보 한 곳에서

### 전북자치도교육청, 19~20일 원광대서 입학정보 박람회 대학별 상담 부스·입시설명회·진로 특강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20일 원광대학교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총 70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상담 부스 운영 △대학별 입시설명회·진로 특강 등을 운영한다. 특히 19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개막식 직후에 EBS 입시 대표강사인 윤운구 교사의 2025 수시 대비 지원전략 특강이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20일 오전 9시 40분부터 면접특

강을 시작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의약계열 특강 등이 릴레이로 운영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사전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s://www.je.go.kr/jnro>)에 접속해 신청한 뒤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1회차는 19일 오후 1시~6시, 2회차

는 20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3회차는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회차별 중복 신청 및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진학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진학상담과 설명회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만큼, 도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해 진학특강 동영상상을 유튜브 전북교육대입정보 TV(<https://www.youtube.com/@jedunovic>)에 탑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2일 정읍의 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기반 수업을 참관하고, 학부모·교직원과 전북교육정책을 공유했다.

## 친환경 주석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 향상

**전북대 김민 교수팀, 기술 개발**



**김민 교수**  
전북대학교 김민 교수 연구팀(공대 화학공학부)의 나헤미 석사과정생이 친환경 주석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팀은 주석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정공 및 전자 수송층에 유연 고분자와 가유 모양의 관상 유기 분자를 각각 도입하는 분자 도핑 모델을 제안, 이 소자의 도입으로 태양전지로부터 발생한 전하가 페로브스카이트 내에 갇히지 않



**나헤미 석사과정생**  
고 효율적으로 빠져나와 태양 전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 과학 분야 상위 3.7% 이내 국제 학술지인 'ACS Energy Letters, IF=22'에 게재됐다. 나헤미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고, 충남대 이재원 교수연구팀과 경북대 차효정 교수연구팀이 함께했다. 특히 전하 수송층에 도핑된 유연 고분자는 주석 페로브스카이트의 필름 형성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구멍을 없애고, 작은 크기의 결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유 모양의 관상 분자는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을 일정하게 메우면서 동시에 전자의 상호 교환 작용을 통해 수명을 높인다. 이에 김 교수팀은 이 분자들을 주석 페로브스카이트에 쓰이는 다양한 전하 수송층에 적용해 일괄적인 효과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최대 21% 이상의 광전변환효율을 보여 기존 대비 10% 이상이 향상됨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개발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 교수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친환경 소재에 관한 연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공정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서 교육감, 정읍 수곡초 방문... 디지털 기반 수업 참관

### 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교육공동체 40여명과 간담회도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2일 정읍 수곡초등학교 5학년 수학 수업을 참관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업은 '다각형의 둘레 구하기'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단원이었다. 이에 전자칠판과 웨일북을 활용해 다각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수업 참관 후에는 학부모, 교직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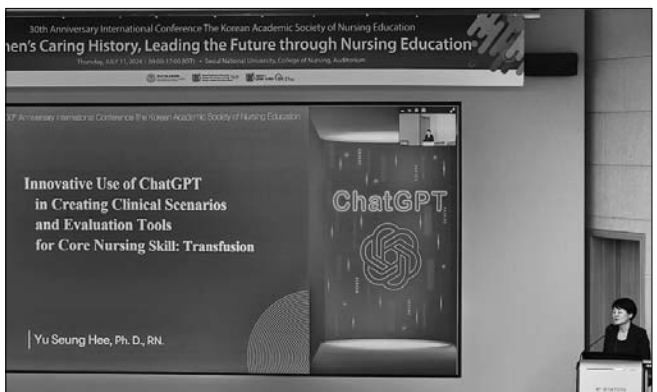
수곡초 교육공동체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IB 교육 확대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 △농산 어촌 학생의 교육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수곡초 교육공동체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평

가, 늘봄학교 운영 등에 관심이 높았다. 서 교육감은 "AI 코스웨어를 적극 활용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며 "수곡초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실 증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사교육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수곡초등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수혈요법 교육 방법에 ChatGPT 활용 혁신 연구 발표

### 전주비전대 유승희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유승희 교수가 지난 11일 개최된 한국간호교육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로 선정, 수혈요법의 교육 방법에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유 교수는 핵심간호술 평가 단계, 성취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수혈요법의 핵심 요소를 선정해 핵심 요소 중심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ChatGPT를 활용해 다양한 질환의 임상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학습 단계 및 교육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의 변형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단편적인 절차 암기식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임상 상황에 맞춘 간호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이번 연구는 미래 간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판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유승희 교수가 지난 11일 개최된 한국간호교육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로 선정, 수혈요법의 교육 방법에 인공지능(ChatGPT)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확산하는 흐름에 따라 간호 교육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ChatGPT를 통해 설정한 단계별 성

취 기준, 평가 방법, 평가 도구, 임상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현재 간호대학의 교육 방향 및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AI특화 직업계고'로 거듭

### 고창 영선고,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 선정

고창 영선고등학교가 AI 특화 직업계고(가칭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영선고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 2025학년도부터 AI소프트웨어 분야 특화 직업계고로 운영된다. 영선고는 그동안 보통과 1학급과 전문계열학과인 자동차과, 생체조경과 1학급 등 총 3학급으로 운영됐으나, 신산업·신기술 분야 대응력을 기르려 AI소프트웨어과 2개반으로 재구조화에 공모한 것. 특히 자동차과와 생체조경과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과장, 화웨이자동차와 생체조경과가 화웨이자동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신산업·신기술 분야 연구 및 선진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준비해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년 트랙인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을 1년에 운영(패스트트랙)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컨설팅, 정보·컴퓨터 부전공연수, 인공지능(기초·심화·고급)연수, 인공지능대학원 운영 등 공모사업 선정을 적극 도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역특화 특성학교 육성을 핵심 과제로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화 특성학교 육성 정책이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국제화역량활동단, 태국서 유학생 유치 활동

### 랑신타·싸라윗타야고교 방문 유학박람회 가져

전북대학교 국제화역량활동단(단장 노원업)이 최근 태국 최대 규모의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를 빛내다라는 뜻의 '전반'으로 명명된 전북대 활동단은 태국한국교육원 주최로 지난 5~7일 방콕에서 열린 태국 한국어학과 캠프 및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해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프 및 박람회에는 방콕민 주 태국대사와 태국 150여 고교에서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유학박람회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한

국에서 온 36개 대학이 함께해 한국 대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전북대 활동단은 단독으로 오프닝 공연을 진행, 현지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전북대 국제화역량활동단은 7월 5~6일 태국 랑신타고교와 싸라윗타야고등학교를 잇달아 찾아 별도의 유학박람회를 가졌다. 랑신타고교 이만랏 학생(한국어학과 3년)은 "전북대에서 준비한 설명회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모든 순간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대와 문화로 하나 될 수 있어 기쁘고, 또 한국 친구들을 많이 알게 돼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원업 단장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과 같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통해 양 대학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국제화역량활동단은 이후 베트남 퀴닌시로 이동해 23일까지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교육공무원직원 노무관리 역량강화 연수

### 전북자치도교육청, 본청 등 업무담당자 80여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일 2층 강당에서 분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공무원직원 노무관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7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직원 노무관리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의 노동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수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됐다. 먼저 기초연수에서는 교육공무원

의 이해, 복무, 임금 등 종합운영계획, 단체협약, 관리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심화연수에서는 인사, 채용, 복무, 임금(나이스 급여 포함) 분야별 사례, 노무관리 방안 컨설팅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원직원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 및 현장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호남중의약대와 협약

원광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송경)과 중국 후난성 호남중의약대학 약학대학(학장 왕웨이)이 학술연구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달 말 호남중의약대학 약학대학 담임원회 장희 서기 주재로 호남중의약대학에서 열렸으며, 송경 학장과 왕웨이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교는 학술성과 및 학생 교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과 교류 촉진을 약속했다. 또한, 약학과 제약 분야의 장점을 발휘해 과학 연구와 인재 양성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전통 약학을 포함한 약학 분야에서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이재훈 기자